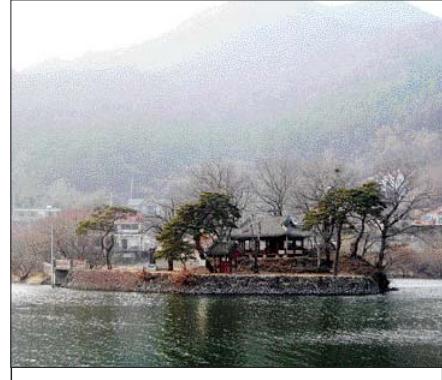


“호수 둘러싼 벚꽃 풍경 환상이지요”

■ 화순군 동면 서성리

김진규·이상연씨 양옥



병자호란 의병 류함
은거생활 위해 지어

■ 환산정은

화순의 비경(秘景)으로 손꼽히는 환산정(環山亭)은 서성제 둘 한가운데에 섬처럼 떠 있다.

병자호란(1637년) 때 의병을 일으켜 청주까지 진격했던 백천 류함 선생이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탄하며 풀 아온 후 은거생활을 위해 지은 정자다.

당시에는 방 1칸의 초가였으나 후손들이 1896년 증건과 1933년 보수작업을 마쳐 현재의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와 건물로 만 들어졌다.

당초 무등산 뒷편 수만리에서 흘러 내리는 냇가의 바위언덕에 세워져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환산(環山)’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지난 1965~1972년 농지개량 조합(현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업용 수 개발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어 물 한가운데에 자리하게 됐다.

4월이면 환산정 주위의 벚꽃이 만개해 수려한 풍경을 선보인다.

지난해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 35호로 지정됐다.

/송기동기자 song@



화순군 동면 서성제 주변에 다양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뒷줄 왼쪽 끝 붉은 색 지붕이 김진규·이상연 씨 부부가 사는 집이다.

화순읍에서 동면으로 가는 국도 22번 구 도로를 5분쯤 가다가 용생마을 삼거리에서 좌회전해 산허리를 감아도는 좁은 길을 따라 재를 넘다 보면 수억년의 시간이 총총이 쌓인 ‘서암절벽’과 그 아래로 서성제(堤)가 내려다보인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조심스레 달리며 오른편 우거진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저수지의 푸른 물빛을 쳐으면 저수지 중앙의 환산정(環山亭)과 그 주변에 들어선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들이 눈에 들어온다.

김진규(56·이상연) 부부가 사는 전원주택은 봄이면 벚꽃이 아름다운 ‘환산정’을 마주보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정도로 빼 어난 경치는 물론 옛 전남도청에서 25분 거리여서 주거형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집마다 건축 스타일이 모두 달라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김씨 부부는 20여년 전부터 전원생활의 꿈을 키우며 장소를 물색해오다 지난 2001년 이곳을 찾게 됐고 물가의 토지를 어렵사

리 1만1천570㎡(3천500여 평) 구입해 이듬해 첫 삽을 뗐다. 김씨 부부는 전원주택 생활이자 동시에 사업자이기도 하다. 토지 매입과 단지 조성과정에서 동네 주민들과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이를 계기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김씨는 “집에서 마주보이는 장군봉 옆 ‘갈미동’ 능선은 목마른 말이 물에 입을 대고 있다는 지세이고 환산정, 서암절벽 등 역사와 옛 체취가 남아있어 정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이곳을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해 자신들의 집을 짓고 나머지 땅을 10명

하거나 우천시에는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다.

현관입구는 목재 데크로 꾸며져 있어 한쪽에 마련된 탁자에서 차를 마시거나 찾아오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기에 안성맞춤이다. 1층은 거실과 부엌·찜질방·온실, 2층은 침실 등 개인공간, 서재로 사용되는 다

인근 초등학교서 소풍 나올 정도로 경치 빼어나

현관입구 목재 데크로 꾸며 이웃과 담소 장소로

고구마·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1층 벽난로 특이

에게 990㎡(300평)씩 분양, 현재 5채가 완성됐다. 이곳은 전원주택으로 선택한 이들은 교수, 의사, 자영업자 등 광주거주 40~50대이다. 이곳 외에도 인근 계곡물이 좋은 천골에 토지 4천여 평을 매입, 13세대가 들어설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다.

김씨는 “일반적으로 건평 40~50평 규모면 평값과 집 건축비를 포함해 평균 2억~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경사면에 위치한 김씨의 2층 양옥주택은 건평 90여 평 규모. 지하 주차장 면적을 빼면 실평수는 70여 평이다. 바깥 계단을 통

락방으로 꾸몄다. 1층 거실의 벽난로가 특이하다. 난방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고구마·감자·떡·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다. 남쪽 창가에 자리한 온실에는 50여 개의 화분에서 난초, 허브, 선인장 등이 자라고 있다. 주택난방은 기름과 나무를 같이 사용하는 화목(火木)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뒤뜰에는 고사리와 굴 깻질 등을 그물망에 담아 말리고 있고, 그 옆에는 약초를 달이는 무쇠 속 2개가 나란히 걸려있다.

“매년 MRI(자기공명 영상법)검사를 한



김진규 씨 부부가 여라 한약재를 무쇠솥에 넣고 달일 준비를 하고 있다.

번식은 할 정도로 머리가 아팠는데 이곳에서 6개월을 지내니 자연 그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소나무 밑에 집을 쓰면 잔병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부인 이상연은 화순 5일장에 가끔 들러 좌판의 할머니들에게 느릅나무 깻질, 도라지, 굴단초 등 약재를 구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약재를 한데 모아 무쇠 솥에서 끓 달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의보감 등 관련 책자를 들춰 보며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150여 평 뒷밭에는 100여 포기의 배추를 비롯해 양파, 고추, 무, 부추 등을 심었다. 물론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 집게로 배추벌레를 일일이 잡아냈고, 거름은 1년 정도 썩힌 깻묵을 사용했다.

전원주택 생활자이자 사업자인 김씨 부부의 개발원칙은 ‘자연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김씨 부부는 “개인 사업자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 군에서 진입로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자금융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50여 평 뒷밭에는 100여 포기의

배추를 비롯해 양파, 고추, 무, 부추 등을 심었다.

물론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 집게로 배추벌레를 일일이 잡아냈고, 거름은 1년 정도 썩힌 깻묵을 사용했다.

전원주택 생활자이자 사업자인 김씨 부부의 개발원칙은 ‘자연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김씨 부부는 “개인 사업자가 단지를 조성할 경우 군에서 진입로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자금융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50여 평 뒷밭에는 100여 포기의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계보청기 – 세기보청기